

우리나라 主要 日刊紙 및 TV 健康情報의 內容分析

이무식*, 임규광**, 나백주**, 김철웅**, 유인숙**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e-mail: jisu5687@hanmail.net

Contents Analysis on the Health Information of Major Daily Newspaper and TV in Korea

Lee Moo Sik*, Lim Kyn Kwang**, Na Baeg Ju**,
Kim Keon Yeop**, Yoo In Sook**

*Ko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요 약

주요 일간지와 KBS 1 9시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건강관련 정보의 경향을 파악하여, 건강 예보제 실시를 위한 현황 분석을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일간지 건강정보 내용분석 결과요약: 기사 보도 분야에서는 생활건강(47.8%), 사회(14.6%), 종합(7.7%), 국제(4.7%), 경제(1.5%) 순이었고, 3/4분기에서만 국제와 경제 분야가 종합분야 보다 많이 보도 되었으며, 기타 분야가 22.9%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건강정보를 대상 성별로 분류 하였을 시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자료가 대다수였고(87.9%), 여성이 대상인 정보(8.0%)가 남성(4.1%)보다 많았으며, 생애 주기별 대상으로 분류 하였을 시에 역시 특별히 구분되지 않은 모든 연령층에 해당 정보가 가장 많았고(60.8%), 성인(19.8%), 학동기 어린이(7.3%), 청소년(4.9%), 노인(4.9%), 영유아(3.3%) 순이었다. 일간지별 기사의 주제를 조사한 결과 두 일간지의 총합은 병의 원인 및 위험인자(15.5%)가 가장 많이 보도 되었는데, 조선일보는 건강증진, 치료 및 술기, 투약, 기타의 순이었고, 한겨레신문은 건강증진, 행정, 치료 및 술기, 투약 순이었으며 각 주제별로 분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예측성에 관한 내용분석을 보면 예보성은 있는 경우(76.2%)가 없는 경우보다 많았고, 예보성의 정보는 알립성, 예측성, 행사성의 순이었고 예측성의 경우 건강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한겨레 신문은 기타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 ICD-10 체계, 21대 분류로 질병에 관한 기사를 분류한 결과 신생물(14.5%),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13.6%), 정신 및 행동장애(9.5%)의 순이었으며 두 일간지간의 차이를 보였다.

2. TV 뉴스 건강정보 내용분석 결과요약: 건강정보의 대상 특정 성별은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265회 중 238회(89.8%)로 가장 많았고,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 해당 되는 것이 154회(58.1%)로 가장 많았다. 건강정보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병의 원인 및 위험인자가 73회(27.5%), 역학(역학조사 및 보도성)이 64회(24.2%), 행정이 30회(11.3%), 증상 및 호소가 27회(10.2%) 등의 빈도순으로 조사 되었다. 건강정보의 내용의 분야를 보면 대분류로는 질병관리 분야가 102회(38.5%), 보건의료제도 및 행정 분야가 52회(19.6%), 보건행태 및 기타 42회(15.8%), 생활환경분야 39회(14.7%)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내용을 질병의 분류 ICD-10 체계로 분석한 결과는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48회(26.8%), 소화기계의 질환, 손산,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주는 요인 등의 빈도순으로 조사되었다.

1. 서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건강 및 건강관련 지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의료인 뿐 아니라 일반대중도 보다 전문적인 건강관련 지식 습득에 대한 요구를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일반대중에게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로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관련 정보들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일반 국민들의 건강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책임도 지니고 있다(대한의학회, 1999 ; 이동수 등, 1996 ; 윤지희와 권순만, 1999). 대중매체에 의한 건강정보는 건강과 질병, 그리고 의료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태도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건의료당국의 정책 의제 설정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Klaidman J, 1960)본 연구는 일반대중이 건강관련 정보 습득의 환경으로 대중매체 중 주요일간지와 KBS1 9시 뉴스, TV방송국의 건강연재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관련 기사의 내용을 예보성 정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살펴봄으로서 일반대중이 제공받는 건강관련 정보의 경향을 파악하여 환자 및 일반인에게 유용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예보제 실시를 위한 현황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2.1. 연구자료

연구 자료는 주요일간지와 1개 TV 방송사 9시 뉴스, 그리고 TV 방송사의 건강연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분석방법

각 매체를 대상으로 각 주제 및 범주별 내용분석에 의한 계량화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내용분석방법이란 어느 내용에 관련된 가설에 의하여 적절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하나의 카테고리 체계를 이용하여 그 일단의 내용을 수량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분석은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업무량의 고려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50%를 분석대상 표본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간지 건강정보 내용분석 결과

건강정보의 보도를 각 신문의 보도 분야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선일보는 187(48.4%), 한겨레신문은 202(47.3%)가 생활 건강분야에 보도된 기사로 전체의 기사 중 47.8%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기타 분류되지 않은 분야에 속하는 기타분야가 22.9%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사회(14.6%), 종합(7.7%), 국제(4.7%)순으로 나타났다. 각 분기별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3/4분기에서만 생활건강(47.1%), 사회(17.6%), 국제(5.0%), 경제(3.9%), 종합(1.7%)로 국제 분야와 경제 분야가 종합분야보다 많이 나타났고 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1).

[표 1] 2006년 일간지 종류 및 분기별 건강관련 기사 보도 분야
단위: 건(%)

	신문사		분기별				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회	49 (12.7)	70 (16.4)	22 (10.9)	25 (13.4)	42 (17.6)	30 (16.1)	119 (14.6)
경제	1 (0.3)	11 (2.6)	1 (0.5)	-	9 (3.8)	2 (1.1)	12 (1.5)
정보과학	2 (0.5)	-	-	2 (1.1)	-	-	2 (0.2)
국제	20 (5.2)	18 (4.2)	11 (5.4)	7 (3.7)	12 (5.0)	8 (4.3)	38 (4.7)
과학	1 (0.3)	2 (0.5)	2 (1.0)	1 (0.5)	-	-	3 (0.4)
생활건강	187 (48.4)	202 (47.3)	92 (45.5)	110 (58.8)	112(47.1)	75 (40.3)	389 (47.8)
정치	-	1 (0.2)	1 (0.5)	-	-	-	1 (0.1)
종합	24 (6.2)	39 (9.1)	18 (8.9)	17 (9.1)	4 (1.7)	24 (12.9)	63 (7.7)
기타	102 (26.4)	84 (19.7)	55 (27.2)	25 (13.4)	59(24.8)	47 (25.3)	186 (22.9)
계	386(100.0)	427(100.0)	202(100.0)	187(100.0)	238(100.0)	186(100.0)	813 (100.0)

조사된 건강정보의 대상특징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자료가 조선일보에서 305(90.7%), 365(8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여성관련 자료가 남성관련 자료보다 모두 많이 차지하였다.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층 전반에 걸친 건강 정보가 총 자료 중 60.8%를 차지하였고 그 외 각 연령대별로 성인(19.8%), 학동기 어린이(7.3%), 노인(4.9%)과 청소년(4.9%), 영유아(3.3%) 순 이었다.

[표 2] 2006년 건강 정보의 대상 특징 (단위:건(%))

	신문사		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성별 대상			
남성	9 (2.3)	24 (5.6)	33 (4.1)
여성	27 (7.0)	38 (8.9)	65 (8.0)
모두 해당	350 (90.7)	365 (85.5)	715 (87.9)
생애주기별 대상			
노인	20 (5.2)	20 (4.7)	40 (4.9)
성인	84 (21.8)	77 (18.0)	161 (19.8)
청소년	18 (4.7)	22 (5.2)	40 (4.9)
학동기 어린이	20 (5.2)	39 (9.1)	59 (7.3)
영유아	13 (3.4)	14 (3.3)	27 (3.3)
모든 연령층 해당	238 (61.7)	256 (60.0)	494 (60.8)
계	386 (100.0)	427 (100.0)	813 (100.0)

건강 정보의 내용에 관해서 8개의 대분류와 그에 따른 소분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분류에서 질병관리 분야 371(45.6%), 보건 행태 및 기타가 205(25.2%), 그리고 보건의료제도 및 행정 분야 87(10.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소분류에 따른 분석에서는 질병관리 분야는 노인건강 및 질병이 조선일보와 한겨레 모두 29.3%로 가장 큰 비중이 있었고, 보건 행태 및 기타에서는 조선일보에서는 일반보건 행정이, 한겨레신문에서는 의료전반(의료비, 시설, 인력) 분야가 그리고 보건의료제도 및 행정 분야 분야에서는 두 일간지 모두 영양관련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 2006년 건강정보 기사의 내용의 분야(대분류)

(단위: 건(%))

	신문사		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질병관리 분야	182 (47.2)	189 (44.3)	371 (45.6)
보건의료제도 및 행정 분야	26 (6.7)	61 (14.3)	87 (10.7)
생활환경분야	17 (4.4)	50 (11.7)	67 (8.2)
환경오염	10 (2.6)	26 (6.1)	36 (4.4)
인구분야	4 (1.0)	3 (0.7)	7 (0.9)
사회복지	18 (4.7)	18 (4.2)	36 (4.4)
산업보건	2 (0.5)	2 (0.5)	4 (0.5)
보건행태 및 기타	127 (32.9)	78 (18.3)	205 (25.2)
계	386 (100.0)	427 (100.0)	813 (100.0)

3.2. TV 뉴스 건강정보 내용분석 결과

건강정보가 방송된 265회를 TV 뉴스 건강정보의 대상의 특징을 성별과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별대상은 남녀 모두 해당되는 것이 238회(89.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여성 대상이 18회(6.8%), 남성 대상이 9회(3.4%)로 조사되었다.

[표 4] 2006년 건강정보의 대상 특징

(단위: 건(%))

	신문사		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성별 대상			
남성	9 (2.3)	24 (5.6)	33 (4.1)
여성	27 (7.0)	38 (8.9)	65 (8.0)
모두 해당	350 (90.7)	365 (85.5)	715 (87.9)
생애주기별 대상			
노인	20 (5.2)	20 (4.7)	40 (4.9)
성인	84 (21.8)	77 (18.0)	161 (19.8)
청소년	18 (4.7)	22 (5.2)	40 (4.9)
학동기 어린이	20 (5.2)	39 (9.1)	59 (7.3)
영유아	13 (3.4)	14 (3.3)	27 (3.3)
모든 연령층 해당	238 (61.7)	256 (60.0)	494 (60.8)
계	386 (100.0)	427 (100.0)	813 (100.0)

TV 뉴스건강정보의 내용의 분야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고 대분류에는 질병관리 분야, 보건의료제도 및 행정 분야, 생활환경분야, 환경오염, 인구분야, 사회복지, 산업보건, 보건행태 및 기타로 나뉘어 살펴본 결과 질병관리 분야가 총 102건(38.5%)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인구분야는 총 1건(0.4%)으로 가장 적게 차지하였다. 질병관리 분야를 이어서 보건의료제도 및 행정 분야가 52회(19.6%)로 그 뒤로 이었으며, 보건행태 및 기타도 42회(15.8%)를 차지하였다.

[표 5] 2006년 TV 뉴스건강정보 내용의 분야(대분류)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질병관리 분야	25(37.9)	29(43.9)	15(23.8)	33(47.1)	102(38.5)
보건 의료 제도 및 행정 분야	13(19.7)	10(15.2)	16(25.4)	13(18.6)	52(19.6)
생활환경 분야	6(9.1)	11(16.7)	14(22.2)	8(11.4)	39(14.7)
환경오염	4(6.1)	2(3.0)	10(15.9)	3(4.3)	19(7.2)
인구분야	-	1(1.5)	-	-	1(0.4)
사회복지	-	2(3.0)	-	1(1.4)	3(1.1)
산업보건	6(9.1)	1(1.5)	-	-	7(2.6)
보건행태 및 기타	12(18.2)	10(15.2)	8(12.7)	12(17.1)	42(15.8)
계	66(100.0)	66(100.0)	63(100.0)	70(100.0)	265(100.0)

TV 뉴스 건강정보 내용이 질병일 경우 질병의 분류를 ICD-10의 체계로 21대 분류로 나누어서 본 결과 총 179회가 질병과 관련이 있는 보도였고 그중에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48회(26.8%)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그 뒤로 소화기계의 질환과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가 각각 18회(10.1%)로 차지하였다. 그 이외에도 건강 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17회(9.5%), 신생물 15회(8.4%)가 있었다. 가장 적은 경우는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비노생식계의 질환,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이 1회(0.6%)로 조사 되었다.

[표 6] 2006년 TV 뉴스 건강정보 내용이 질병일 경우 질병의 분류(ICD-10의 체계, 21대분류)

	계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48 (26.8)
신생물	15 (8.4)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6 (3.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6 (3.4)
정신 및 행동장애	12 (6.7)
신경계의 질환	4 (2.2)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2 (1.1)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1 (0.6)
순환기계의 질환	7 (3.9)
호흡기계의 질환	9 (5.0)
소화기계의 질환	18 (10.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5 (2.8)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5 (2.8)
비노생식계의 질환	1 (0.6)
임신, 출산 및 산욕	3 (1.7)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 (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1 (0.6)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 (10.1)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17 (9.5)
계	179 (100.0)

4.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국민들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일선 등,2004 ; 오진주,1991). 그러나 일반 대중은 기본적인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얻기 어려운 데다 엄격한 광고규제까지 있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있다. 대중매체 중 특히 신문은 인쇄매체로서 신문 기사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사회적 여론을 유도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주민과 가장 접촉율이 많은 매체로 TV, 신문 순으로 나타나 있다(이동수,1996 ; 고일선 등,2004).

건강정보를 대상자의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일간지와 TV 뉴스 모두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자료가 가장 많았고, 생애 주기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특별히 구분되지 않은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 정보가 가장 많았다.

건강정보의 주제를 보면 일간지에서는 병의 원인 및 위험인자(15.5%), 치료 및 술기, 투약(15.4%), 건강증진(14.6%) 순이었고, TV 뉴스는 병의 원인 및 위험인자(27.5%)가 가장 많았고, 역학(24.2%), 행정(11.3%)순이었다.

건강정보를 내용분야 별로 살펴보면 질병관리 분야가 일간지, TV 뉴스 모두에서 각각 46.5%, 38.5%로 가장 많았으며, 일간지에서는 보건행태 및 기타(25.1%), 보건의료제도 및 행정 분야(10.7%)가 뒤를 이었고, TV 뉴스에서는 보건의료제도 및 행정분야(19.6%), 보건행태 및 기타(15.8%), 생활환경분야(14.7%)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신문 등의 대중매체와 의사와의 접촉이 일반 대중에 대한 건강교육에 보다 바람직하게 이바지하려면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의 협력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이동수 등,1996).

ICD-10 체계, 21대 분류로 질병에 관한 기사를 분류한 결과 일간지에서는 신생물(14.5%),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13.6%), 정신 및 행동장애(9.5%)의 순이었으며 두 일간지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4/4분기에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다른 정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TV 뉴스에서는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48회(26.8%), 소화기계의 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주는 요인 등의 빈도순으로 조

사되었다. 김신정의 연구를 보면 WHO 국제 질병분류법에 의한 빈도를 살펴보면, 감염성질환(29.6%), 정신질환(12.9%), 감각신경계질환(8.6%), 근골격계질환(7.9%), 호흡기계질환(7.2%), 기타(5.8%), 피부질환(5.0%), 대사성질환(3.6%), 비뇨생식기계질환(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에 있어서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김화자 등, 1993)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아동에 있어서 감염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문기사에서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김신정 등, 1999).

Free press, 1960.

[16] Lamontagne Y. Medical marketing in the media. Union Med Can 1991;123(3):217-8

[17] WHO, Education for health - A manual on health education in primary care, 1988.

참 고 문 헌

- [1] 고일선 등, 영상매체의 고혈압관련 기사 내용 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4;18(1):90-102.
- [2] 김병익, 주요일간지의 보건의료관계사설 내용분석, 예방의학지, 1980;13(1):53-66.
- [3] 김신정 등, TV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의 건강성과 해독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1;12(2):513-531
- [4] 김신정 등, 아동건강에 관한 신문 기사 내용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1999;5(2):167-184
- [5] 김지미, 주요일간지의 건강관련기사내용 분석,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85;3(1):29-42.
- [6] 대한의학회, 국내 공중과 TV를 통한 건강정보의 적절성 평가 연구,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1999.
- [7] 박선희 등, TV 오락 프로그램의 건강정보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003;20(1):187-202.
- [8] 이동수 등, 내용분석을 통한 일간 신문 암관련기사의 적절성 연구, 가정의학지, 1996;17(2):159-165
- [9] 이성은,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 내용분석 - 최근 1년간 주요 일간지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4.
- [10] 오진주, 최근 3년간 주요 일간지의 보건의료관계 사설 내용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1;5(1):23-34.
- [11] 윤지희, 권순만, 일간신문의 병원과 관련된 기사 분석, 병원경영학회지, 1999;4(2):60-84.
- [12] 정면숙 등, 신문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3;23(1):16-28
- [13] 최은진, TV 방송을 통한 건강정보 보급의 현황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1999;7(2):15-21
- [14] a; Faris FA. Tjhe selection of appropriate health education topics for publication in te press. Scan J Prim Health Care 1993;11(3):163-8.
- [15] Klaidman J, The effect of mass communication.